

완도군, 지역 우수 수산물 북미시장 진출 가속화

캐나다 T&T 슈퍼마켓서 전복 판촉 제51회 LA한인축제서 해조류 판매 식품 수입업체 ‘한카’ 300만불 협약 “해외판촉 활동 수출기업 지원 지속”

완도군이 캐나다와 미국서 수산물 판촉 행사와 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 수산물의 북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캐나다 밴쿠버의 T&T 슈퍼마켓에서 전복 판촉 행사를 개최했다.

T&T 슈퍼마켓은 캐나다 최대 아시아 식품 취급 체인 슈퍼마켓으로 완도군은 19개 매장에서 관내 기업인 더폴문주식회사완도의 자숙 냉동 전복 제품 시식 및 홍보 행사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는 11월 30일까지 기간 중 15일간 진행된다.

아울러 캐나다 내 아시아 식품 수입 업

체인 Han Ka Export-Import Ltd. (이하 한카)와 300만불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또 2025년 밴쿠버에서 열릴 ‘코리안 데이 완도 특산물 판촉 행사’ 추진을 위한 논의를 마쳤다.

지난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제51회 LA 한인 축제’에서는 관내 기업인 (주)바다명가, (유)해성인터내셔널, 완도 바다영어조합법인, 다시마전복수산영어조합법인 등과 함께 판촉 행사를 진행했다.

전복, 해조류, 광어 등을 홍보·판매해 지난해에 이어 완판(10만 불)하며 미국 LA시장에서 완도군 수산물 입지를 다졌다.

축제 기간 동안 LA 흡소핑 월드의 2개 매장에서 (유)대한물산, (유)해성인터내셔널, (유)완도세계로237, 완도다어업회사법인주식회사, 완도바다영어조합법인 등 5개 사의 수산 제품의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도 진행해 수산물의 우수성



완도군이 지난달 26~29일 미국 LA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린 제51회 LA한인축제에서 수산물 판촉전을 열었다. **완도군 제공**

을 알렸다.

지난 9월 26일에는 한국 식품을 수입·유통하는 Latino and Korean Association(이하 LAKOA)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미국 내 라티노를 대상으로 한 시장 개척을 위한 물꼬를 뒀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시장 개척 활동이 앞으로 더 많은 수산물이 북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며 “군은 해외 판촉 활동, 제품 개발 등 수산물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강진백운동전시관 준공식 연기 “늦어진 만큼 알차게 준비할 것”

강진군은 당초 4일에 예정됐던 강진백운동전시관 준공식을 호우와 태풍 예보로 오는 22일로 연기했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준공식에서 고즈넉하면서도 웅장한 전시관 건물과 백운동을 지킨 원주이씨 문중의 기록문화유산 선보일 예정이었지만 기상 여건과 피해복구, 내부 시설 점검 문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일정을 연기했다.

백운동원림은 조선 중기 자연과 인공이 적절히 배치된 구성으로 전통 원림이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주거 공간에 유상곡수(구불구불한 물길)를 조영해 월출산에서 흘러내린 계곡물이 아홉 구비를 돌아 나가는 최고의 정취를 자랑한다. 또 담양 소쇄원, 완도 보길도의 세 연장과 함께 호남의 3대 정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건축사와 조경사적 가치가 탁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강진군 관계자는 “늦어진 만큼 더욱 알차게 준비해 관광객들을 맞이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윤복 기자**

목포해경, 갯벌 고립자 구조 영광군 백수해안도로 인근 해안가

목포해경이 지난 6일 오전 11시 37분께 영광군 백수해안도로 노을중 인근 해역 갯벌에 고립된 A씨(70)를 무사히 구조했다.

7일 목포해양경찰(서장 권오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1시 1분께 고동을 채취하기 위해 갯벌에서 조업하던 중 다리가 뺨에 깊게 박혀 나가지 못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목포해경 영광파출소는 순찰 중 즉시 현장으로 이동 후 육상으로부터 약 100m에 떨어져 간쉴암 위에 고립된 A씨를 발견, 경찰관이 직접 입수해 신고 접수 36분 만에 무사히 구조 후 소방에 인계했으며 A씨의 건강상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갯벌 활동 전 반드시 물때를 미리 확인해야 하며 주변 지형을 숙지하고 안전 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완도군이 지난달 26~29일 미국 LA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린 제51회 LA한인축제에서 수산물 판촉전을 열었다. **완도군 제공**

해남캠핑관광박람회, 동호인 5만여명 발걸음

해남군 오시아노 관광단지에서 열린 캠핑관광박람회에 5만여명의 관람객이 찾으며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마무리됐다.

7일 해남군에 따르면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해남오시아노관광단지 일원에서 개최된 2024 해남 캠핑관광 박람회에는 캠핑관련 100여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최신 트렌드의 캠핑장비와 캠핑카, 카라반 등을 선보이며 캠핑 동호인을 포함한 관람객들의 발길이 연일 이어졌다.

임시캠핑장 등 600여팀, 4000여명이 동시에 캠핑 가능한 대규모 캠핑장을 조

성해 나흘내내 전국에서 찾아온 캠퍼들이 직접 캠핑을 즐기는 캠핑대회도 함께 치러지면서 캠핑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로 마련돼 박람회에 활기를 더했다.

4일간 펼쳐진 박람회와 캠핑대회를 통해 4만9500여명이 오시아노 관광단지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람회 참가업체와 각종 판매부스를 통해 112개 업체에서 17억6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캠핑객들의 소비액 또한 3억300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경제효과 또한 21억여원에 달하는 특목

한 성과를 거두었다.

행사기간 동안 카라반과 캠핑카 등 고가의 캠핑 차량이 11억2500만원의 매출(계약) 성사된 것을 비롯해 캠핑용품 업체들도 총 3억2800여만원에 이르는 매출을 기록했다.

현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빈손캠핑 캠페인을 통해 박람회장내에 식재료 구입 및 체험이 가능한 식음료·농수특산물 판매 업소와 지역 음식점들이 입점하면서 해남로컬푸드직매장이 15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21개소에서 1억6500여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4000여명 캠퍼들로 북적된 캠핑장에서도 3억3000여만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전연수 기자**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열린다

생태공원서 26일부터

제9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 축제가 오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9일간 강진만생태공원(강진군 강진을 생태공원길 47)에서 개최된다.

7일 강진군에 따르면 갈대축제는 남해안 최대 생태 다양성의 보고인 강진만생태공원의 품속에서 갈대와 문화, 사람이 한데 어우러진 생태 관광 축제로, 모두 6개 분야, 46개의 단위 행사가 펼쳐진다.

개막식은 26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되며 가수 진옥, 조정민, 손태진이 출연해 화려한 막을 올린다.

‘갈대의 추억, 살아있는 생태, 어린이들의 놀이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1572종 생명의 보고인 강진만의 생태계에 대해 배우는 ‘갈대로드 생태탐험대’와 함께 어린이에게는 즐거움을, 관광객에게는 휴식을 제공하는 흔치 않은 힐링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갈대로드 생태탐험대는 초등학교생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자연생태 해설사의 재치 넘치는 설명과 함께 하는 생생한 탐방으로 갯벌 생태계에 대해 배우는 기회와 함께 잊을 수 없는 유년기의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어린이들을 위한 특급 행사인 ‘우유 파

티’도 마련된다.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DJ가 틀어주는 흥겨운 음악 속에 우유, 요구르트, 솜사탕 등이 제공된다.

환경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자연의 고마움을 느껴보는 ‘갈대밭 힐링 산책길’에는 양산 대여 서비스가 제공되며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밤에는 ‘갈대로드 달빛 야행’이 펼쳐지며 흔치 않은 가을밤의 낭만을 수놓는다.

9일간의 축제기간동안 대형 음식 부스 3곳에서 향토음식관이 운영되며, 강진군이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강진 농특산물 판매관인 ‘초록믿음 직거래 장터’와 함께 다양한 먹거리, 즐길거리를 겸비한 군민 주도형 자율 장터가 운영돼 먹고 쇼핑하는 즐거움도 추가된다. **강진=김윤복 기자**

목포시, 하반기 저수조 청소 안내 법적대상 건축물 372개소

목포시가 맑고 깨끗한 수돗물 사용을 권장하고 지하수보다 위생적으로 안전한 수돗물 마시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저수조(물탱크)에 대한 2024년 하반기 청소를 안내했다.

7일 목포시에 따르면 저수조(물탱크) 청소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법적대상 공동주택과 건축물은 372개소이다.

저수조는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하반기 청소는 강수량이 많고 다량의 물소비를 저수조에 침전물이 증가하는 하절기를 지나 10~12월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수조 청소대상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환경보전협회에서 실시하는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사이버)을 받아야 한다.

시는 저수조(물탱크) 청소 및 정기수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해당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시는 공동주택의 경우 저수조 청소 시 각 세대에 수돗물 공급 중단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수 안내 등 조치를 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저수조 청소, 정기수질검사는 목포시청 수도과 (061-270-4171·4149)로 문의하면 되고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은 환경보전협회 광주·전남본부(062-369-5580)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정기찬 기자**



찾아가는 국가 구강검진 클리닉 해남군, 수검률 향상 목표

해남군은 지역 주민들의 국가 구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건강한 구강관리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찾아가는 국가 구강검진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사업은 치과 방문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문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 구강검진, 스케일링, 불소 도포, 구강보건 교육 등을 제공하게 된다.

검진대상은 올해 짝수년도인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이다.

해남군의 국가구강검진 수검률은 2022년 기준 16.6%로 전년 18.9%에 비해 낮은 편이다. 군에서는 수검률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국가 구강검진 클리닉을 운영하게 됐다.

검진 비용은 1인당 8120원으로 전액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주민들은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다.

국가 구강검진 클리닉 일정은 보건소 보건행정팀(061-531-3721)으로 문의하면 된다. **해남=전연수 기자**